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매듭’에 의한 공간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소 원

‘때듬’에 의한 공간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소 원

인 준 서

정소원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예술(藝術)은 인간의 직립보행과 동시에 손의 사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생(現生) 인류로 약 4만 년 전부터 시작된 호모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사람)는 수렵생활을 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생활의 현상들을 기록하는 것에서 인류 초기 예술 활동의 시작 이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한 도구발달 목적과 기록의 행위로 시작되어 주술적인 의미로 발전되었으며 더 나아가 아름다움을 위한 예술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조각이나 바구니 짜는 일, 가죽손질, 금속을 다루는 일 등에 놀라운 손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손의 섬세한 발달을 통해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섬세한 손의 발달로 섬유예술이 발전하였는데 묶고, 엮고, 짜는 행위의 매듭의 형태가 언어나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의사 전달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발전한 오늘날의 매듭의 형태는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기능과 미적 감각이 보태졌다.

매듭이 생활용품의 영역을 넘어 장식적 용도로 쓰이게 되면서 생활용 매듭과 장식용 매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예부터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 매듭은 인류의 역사를 논(論)하기 위한 소재 중 하나 이다.

본인은 매듭을 반복적으로 맺는 작업을 하며 반복적 행위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연구하고, 매듭에서 나타나는 작은 공간들을 통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자리(place)에 대해 탐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3년 본인의 개인전 작품들을 바탕으로 「‘매듭’에 의한 공간 표현」에 관해 연구, 분석 한 결과로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 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

다.

제 2장 본론 에서는 첫째, 불안 심리로 인한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고찰과 공간(place)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여 작품형성배경을 나타내었다. 둘째, 작품표현 방법으로 선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조형표현에 대해 알아보았고 매듭을 현대조각에 맞게 재해석 하여 조각적 특징과 구조, 설치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작품 7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심리의 고찰	3
2)반복의 이해	5
3)공간(자리)형성	8
2. 작품표현 방법	12
1)선을 기본으로 조형표현	12
2)매듭의 현대적 표현	14
3. 작품분석	18
III.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공간을보다, 끈, 100x100(cm), 2013	18
【작품 2】	물의공간, 끈, 100x100(cm), 2013	20
【작품 3】	공간의이동, 끈, 455x70(cm), 2013	22
【작품 4】	공간확장1, 끈, 100x100x45(cm), 2013	24
【작품 5】	공간확장2, 끈, 100x100x45(cm), 2013	26
【작품 6】	자리잡기, 끈, 60x60x200(cm), 2013	28
【작품 7】	정상궤도, 끈, 350x200(cm), 2013	30

I. 서론

현대사회 속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심적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는 매순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안과 마주하며 살아간다. 불안은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와 같이 존재한다. 아마도 불안이란 감정과 마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우리의 삶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¹⁾ 불안함의 표시는 바디랭기지(body language)로 어떻게든 표현이 되기 마련이다. 본인의 심적 불안은 손의 움직임으로 표현이 된다. 의도함이 아닌 어느 순간 무의식 적으로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지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떠한 사물을 손에 쥐고 해소하게 되는데 끈을 만지며 반복적으로 매듭 짓는 행위는 본인에게 내적 안정감을 주었다.

매듭을 만들기 위해 끈을 맺고, 조이는 과정 중 에서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해소 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을 발견하였고. 반복 되는 행위에 몸을 맡긴 채 손이 움직이는 데로 매듭을 맺는다. 이런 행위는 시선을 집중하게 하며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평정상태를 되찾게 한다.

매듭의 시작은 인간이 손을 사용함으로써 풀줄기, 나무껍질,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하여 엮고 짜는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최초의 창조적 작업이었다. 생활을 위한 작업용 매듭으로 시작된 매듭이 인간의 미적 표현 욕구로 인하여 장식용 매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발전하여 장인들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왔다. 매듭을 맺는 과정은

1) 김현철,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출판사 서평, 애플북스, 2011

그 세밀한 조형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필요성의 단계를 넘어 절대 단계로 나아간 예술이며, 언어보다 한 차원 높은 예(禮)의 정숙(靜淑)한 단계이다.²⁾

매듭을 소재로 이용한 본인 작품의 특성으로는 오브제의 반복, 이동, 확장으로 형성되는 조형성(造形性)과 끈이 갖고 있는 선의 느낌을 통해 드로잉(drawing)의 면모(面貌)로 무한히 뻗어나가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며 끊임없는 손의 움직임 속에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하는 공간에 생명(生命)이 존재함을 알고 각각 분할된 공간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무리를 만들어 냈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음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 이론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연구 과정을 밝혀 본인의 작품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적 불안에 의한 떨림과 그로 인한 반복 행동을 알고자 한다.

둘째, 반복, 확장, 이동으로 인한 공간 발생 속에서 자기자리(place)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셋째, 매듭을 현대 조각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 하고자한다.

이러한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의 조형적 표현 특징을 논(論)하며,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김희진, 「아름다운 우리매듭」, 그래픽네트, 2008, p206

Ⅱ.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심리의 고찰(考察)

우리는 끊임없이 집단과 관계하며 규칙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본능이 있다. 오늘날 사회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 한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영역)를 잡고 사회의 규칙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만약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물결에 뒤떨어진다면 혹은 자신의 자리(영역)가 없어진다면, 불안정의 상태 또는 불안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³⁾

사회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관계 하는 모든 것이 변화함에 있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불안은 항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우리가 발전 하는데 생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안 심리는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으로 유도하며 발전하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감정이다.

이러한 긍정의 의미로의 불안 또한 신체외적인 형태로 불안감정이 표출되는데 그 형태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대개 정상적인 반응이다.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협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 그 강도와 지속시간은 상당히 다양하다. 불안은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신체

3)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 하이데거의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청계, 2002

적 징후로는 심장 박동의 증가, 호흡이 빨라짐, 떨림, 땀 흘림, 설사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들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은 모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 느낌은 신체 감각을 수반할 수도 있고 신체감각으로 완전히 대체되기도 한다.⁴⁾

이처럼 불안이 외부 몸의 행동 형태로 표출되어 질 때 자신의 불안 감정을 극복하고 조절하는 자아의 기능은 신체의 반복적 떨림에 있어서 회복되어 진다.

본인은 불안 심리를 통한 신체적 반응으로 떨림에 집중하며 이러한 떨림이 어떤 행위로든 반복행위로 변화하여 표현된다. 이 떨림은 불안에 대한 방어적 표현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적 행동으로 연결 된다.

본인에게 이러한 불안 속에서의 의식적 떨림은 끈을 반복적으로 매듭 짓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작은 떨림에서 시작된 끈을 맺는 반복적 행위는 본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며 작품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치유하기도 한다. 또한 정신적으로 단련이 되며 행위와 관련된 사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고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며 마음과 의식이 비워지고 정돈되어 가는 감정 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반복의 외적 행동은 그 자체로 아마 더욱 비밀스러운 어떤 떨림의 반향일 것이다.

4) 이재훈, 「정신분석용어사전」, 미국정신분석학회,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 반복의 이해

반복에서의 일반성(一般性)은 자연법칙의 반복을 기대 하는데서 온다. “먼저 옷을, 그 다음 바지를 꿰입는 것, 저녁마다 침대 안으로 기어들었다 아침마다 다시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 그리고 항상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디디면서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일인가.”⁵⁾

이렇게 우리는 자연적 본성에 따라 쾌락, 과거, 정념 등의 반복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반복은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이면서 필수적인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반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삶의 기본적 반복은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 필요충분조건이며 살아가는 동안 삶을 위하여 매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안다.

이렇게 당연한 삶의 행동들 속에서 본인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행동인 반복 행동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가능하기 위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발견하였다. 이 공간은 즉 어떤 사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요인 에 의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형 되어지는 무형의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인간의 생존행동 반복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이 분할되고 새로운 공간의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반복은 넓게는 세상의 큰 법칙에 존재하며 작게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개개인의 내면을 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반복적인 작은 떨림을 경험 할 수 있다.

5)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믿음사, 2004, p31

본인은 세상의 큰 법칙에서 일반적 반복을 깨달았고, 이러한 큰 흐름에서 연결되어 본인 심리에 의한 작은 떨림이 반복됨에 집중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반복행위란 심리적 안정감과 무념무상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 매듭 짓기를 통하여 현시대 사회적 인간으로써 불안을 해소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질 들뢰즈’의 일반성의 자연법칙처럼 인간의 삶이 반복의 연속 상에서 매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소멸되며 공간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생성과 소멸을 반복 하고 있다.

본인은 작품에서 현시대의 일상과 반복의 행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이용해 본인의 삶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대의 사회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예술은 지금 순간순간 느끼는 인생의 보람과 자신감에서 오는 기쁨이며,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예술 작품이다. 더욱이 기계의 일부 분으로 마치 수레바퀴처럼 목적 없이 빙빙 돌며 움직이는 존재로 전략한 현대인과 그러한 현대인의 공허한 삶에서 예술은 더욱 의미 있다.⁶⁾

이러한 현시대에 개인적 감성의 조형성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는 것이 오늘날의 예술임을 안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표현되어지는 반복은 작가들 마다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반복의 의미 또한 다양하다. 반복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을 배열하거나 원작을 복제하여 다시 나열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미니멀리즘 작품들에 다양한 반복형식을 볼 수 있다. 공간과 구조를 반복에서 표현하였던 칼 안드레(Carl Andre)는 1965년 미니멀리스트로서 물질적 작품 자체뿐 아니라 단위요소로 이루어진 작품 전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관계를 주요한 요소로 보았다. 조각과 공간의

6) 오카모토타로, 「오늘의 예술」, 김영주 역, 눌와, 2005

관계는 단순히 전시실을 가득 채우는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위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된 공간을 통해 총체적인 작품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주고자 한 것이다.⁷⁾ 작품과 전시실의 공간의 관계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구조로 인식 되는 것이다. 또한 재료의 물질성은 변형되지 않고 반복되므로 작품은 단위인 동시에 총체적인 구조 형상으로서 보여 진다. 이렇게 반복은 규칙과는 상관없이 덩어리 구조를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에서 끈이 서로 열키고 설켜 엮어진 매듭의 반복 속에서 덩어리 구조를 볼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한 끈이라는 재료의 물질성은 간단하고 힘없는 부드러운 끈 이지만 개개의 것들이 모이고 엮이고 겹쳐져 단위를 만들고 또 그것들이 구조를 만들고 있다. 얇은 단위요소들을 겹치고 연결하여 열린 듯 하지만 닫혀있고 닫힌 듯 보이지만 열려있는 형태를 만들었다. 미세하게 보여 지는 작품 넘어 의 공간에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닫힌 공간 없이 전체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의 개체 에서는 표현 될 수 없는 복수(複數)의 개념에서 보여 지는 형식이다. 본인은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우리의 인간 사회를 대입해 이야기 한다.

7) 이유정, 「칼 안드레의 작품을 통해 본 미니멀리즘의 양면성」,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2) 공간(자리)형성

'공간(空間)'이란 어떤 사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요인 혹은 사물 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무형(無形)의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공간 없이는 형태(形態)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형태 없이는 공간 또한 만들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상호(相互) 관계 속에서의 공간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망각(忘却)해 버리는 사물의 기본 요소들이다. 주체와 공간(구조)은 중첩될 수 있으며 구조가 주체를 만들고, 주체 또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일 뿐, 주체적으로 생성되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이라면 모든 것이 공간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간에서 본인은 존재(存在)를 이야기 한다.

인간의 삶이 반복의 연속 속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생성(生成)되고 소멸(消滅)되는 과정이 있는 한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또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과정은 반복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성과 소멸이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되는 매듭은 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아주 작고 소소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공간을 통해 본인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간을 제시 한다. 더 나아가 이 작은 공간은 자신의 영역(領域)을 유지하는 자기자리의 의미로 확장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움직임과 자기 영역의 확장은 인간의 본능에 있는 생물학적 욕구⁸⁾와 사회적 욕구⁹⁾에서 나온다. 본능은 선천적인 것으로만 보

8) 식욕, 배설욕, 수면욕, 성욕, 활동욕 등 인간의 생리적 생물학적 욕구

9) 사회적 인정의 욕구, 집단소속(集團所屬)의 욕구, 성취의 욕구 등 인간의 사회적 욕구

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리학적 욕구인 활동욕 즉, 움직임은 통해 사회적 욕구인 자기 영역 유지 및 자기자리 확장의 개념을 갖는다.

우리는 서열과 계급이 있는 사회 공간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으며 살고 있다. 존재하기 위한 자기자리(place)의 공간 유지는 인간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와 동일하다. 즉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자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 사회적인 의미는 권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권력에 의해 구성된 자리의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어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¹⁰⁾

공간구조를 선형적이고 추상적이고 무중력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인간과 사회, 역사의 문제로 재해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형식을 만드는 것이 현대 예술의 과제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공간의 여러 모습들은 매듭의 궤적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공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하고 있고 그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매듭 속에서 만들어진 작고 소소한 공간을 통해 사회의 집단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각자 자기자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회적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기본이 되는 조밀하게 옥죄는 듯한 매듭의 단위 구조로 부터 심해라는 거대한 실재계에 이르는 공간의 계열이 있으며, 하나의 단위구조로 형성된 구조는 자율성을 가지지만, 주위 조건에 따라 이동되며 확장의 개념을 갖는다.

진화(생성)하며 소멸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10) 조너선 스미스, 「자리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이학사, 2009

재결합하여 그것만의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과 확장의 반복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몸부림이며 인간의 욕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 개념을 바탕으로 선으로 만들어진 작고 소소한 매듭의 공간을 이동, 확장 시켜 깊은 사유(思惟)의 공간으로 존재(存在)에 대해 고찰 하며 내가 살아 발전하고 진화하며 때가되어 소멸해 가는 삶의 과정을 모두 내포 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영역은 설치(設置) 를 통해 더욱 극대화된다. 설치는 어원적으로는 어떤 공간에 사물을 놓음을 의미한다.

설치미술은 단순히 공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공간을 규정 짓고, 그것을 구조화·작품화 한다는 것이다. 오브제의 집합을 통하여 3차원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주변 공간과의 집합을 통하여 거대한 공간 개념을 제시하고, 주변 환경과의 집합을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조형 을 체험 하게한다.¹¹⁾

특정한 장소나 전시공간을 고려하여 제작된 작품과 공간이 총체적인 하나의 환경을 이룸으로써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미술을 말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전시장의 벽면에 작품을 매달아 설치하고 빛을 사용하여 본래 작품에는 없는 벽면의 그림자를 함께 볼 수 있다. 그 그림자도 작품의 일부이다.

빛·소리·물·바람·공기 등 자연 경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소재로 구성되는 관객 주위에 전체를 채워 넣는 예술 형태로 공간이 대상화(對象化)된다. 따라서 설치미술을 경험하는 관객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직접 참여 되며 작품 자체 및 작품과 주위 공간 뿐 아니라 공간과 관람자가 이

11) 함호진,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설치미술적 오브제에 관한연구」,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루는 관계까지 작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2. 작품 표현 방법

1) 선(線)을 기본으로 조형표현

조형예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점. 선. 면. 이다. 점은 크기와 위치는 있지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율동감이 없다. 선은 점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율동적인 표현이다. 선의 기능은 내부 촉각 특히 운동에 관한 재생 감각을 매개로 하여 감정이나 의욕 또는 정취가 쉽게 결합된다. 즉 방향, 속도, 힘, 장단, 굵고 가는 것, 소밀(疏密), 굴신(屈伸) 등의 기교에 의해 무한한 정신 표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의 선은 대상의 의미나 표상(表象)과 협동하거나 또는 그것과 독립적으로 유정화(有情化)되거나 생명화 된다.¹²⁾ 따라서 이러한 선의 기능은 회화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미술의 예술가와 작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인의 작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조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다. 선의 느낌이 강한 끈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작업하였기 때문이다. 선의 종류 중 곡선에서 느껴지는 율동감에 집중하였는데 곡선은 직선의 진행방향에 변화로 생기는 선으로 다양한 곡선과 원, 원호 등이 있다. 이러한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은 본인이 지향(志向)하는 삶의 모티브(motive)가 된다. 이런 다양한 원과 호들이 반복, 확장, 이동하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무한한 공간속에서 자유롭게 확장되며 이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존재와 생명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곡선의 원호 들은 한국 전통매듭인 생쪽매듭 에서 응용하였는데 이 매듭은 끈을 묶는 행위로써 이루어진다.

12) 월간 미술, 「세계 미술 용어 사전」, 2007

묶는 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

- 끈, 줄 따위를 매듭으로 만들다.
- 법령 따위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다.
- 사람이나 물건을 기둥, 나무 따위에 붙들어 매다.
- 끈, 줄 따위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단단히 잡아매다.
- 사람이나 사물을 한데 붙어 있도록 끈 따위로 동이다.
- 여럿을 한군데로 모으거나 합하다.
- 여럿을 한 체제로 합치다.¹³⁾

끈을 매듭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묶는 다는 행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즉 매듭은 묶는 행위가 완료되어 만들어진 형태 인 것으로 묶는 다는 것은 각각 독립적인 개체를 둘 이상으로 합쳐 주는 의미로 유형(有形),무형(無形) 형태의 모든 것을 연결 한다. 이러한 매듭의 묶는 행위는 본인의 작품에서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있어 무리를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함에 있다.

또한 끈이라는 어원은 인간의 삶에 비유해볼 수 있다. 인간의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 문제를 맺고 풀고 잇고 끊는 끈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끈의 의미 또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인의 작품에 이입(移入)시키기 좋은 대상이다.

13) NAVER 국어사전, 「묶다」

2) 이동과 확장으로 표현된 매듭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돌도끼나 돌칼의 구멍에 끈을 꿰어 쓴 흔적에서 생활용 매듭을 엮 볼 수 있고, 고대 잉카의 키푸(quipu)매듭이나 중국 고대의 결승(結繩)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도 매듭이 문자와 숫자를 대신하였으며 정사(政事)에도 이용 되었다. 더 나아가 운반, 농경, 건축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시대와 민족의 생활 문화 향상과 더불어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살린 의식용 매듭, 장식용 매듭, 공업용 매듭으로 나뉘어 발전 하였다.¹⁴⁾

마음과 손끝이 하나 되어 무(無)에서 유(有)를 빚어내는 균형과 질서의미를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단아하고 정갈함에 매료되어 매듭이라는 오브제(objet)를 이용해 현대조각 으로 재해석 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매듭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매듭의 종류는 기본적인 것만 도 약 30여 종이 되며, 전통매듭 전성 당시의 지방 특유의 매듭 종류까지를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맺는 방법은 보통 한 오라기의 끈목을 반으로 접어 중심을 잡고, 두 손끝으로 2가닥의 끈을 순서대로 엮어 차례로 죄어서 만드는데 이때 대나무 송곳을 쓰며 꼬이기의 과정을 거친다. 엮고 죄는 순서가 질서 정연하여 조금만 틀려도 정갈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매듭의 특징은 완성된 매듭 모양이 앞면과 뒷면이 똑같고, 좌우는 대칭이 되며, 아무리 복잡한 매듭이라도 중심에서 시작하여 중심에서 끝나게 되어 있다.

본인은 생쪽매듭의 단아하고 간결한 미(美)에 매료되어 본인의 작품에 기분이 되는 하나의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작품 1】에서 생쪽매듭을 반복

14) 김은영,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미진사, 2009

나열해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 패턴은 단일의 단위가 반복함으로써 또 다른 공간이 확장되며 만들어지고 있다. 【작품 2】는 기본이 되는 생쪽매듭을 변형시켜 본인이 체험했던 바다 속 공간을 푸른색의 그라데이션(gradation) 염색기법으로 은은한 아름다움의 동양적 미(美)를 볼 수 있고, 입체적 원근감을 표현하게 되어 넓고 깊은 바다의 심오함을 표현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공간 이동과 공간 확장 두 가지 표현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 공예 기법에 존재하는 4개의 잎 모양을 8개로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공간구조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은 이동하며 확장을 보여준다.

① 이동

【작품 3】 【작품 6】 【작품 7】에서 공간 이동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색상은 짙은 남색계열로, 남태평양의 섬에서 있었던 스킨 스쿠버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실재에 대한 원초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넓고 깊은 바다는 공간의 원형적 모델이 되며, 갖가지 다양한 공간들을 품고 있다.

【작품 3】 점점 깊어지는 닿을 수 없는 아득한 물속의 깊은 어둠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중심의 축을 이동시키며 다양한 공간분할을 의도하였으며,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점점 더 세분화되는 공간속에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7】에서는 물고기 떼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타원형의 궤적이다. 물고기들의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인간 자신의 영역유지활동과 유사함을 보았다. 표현법으로는 매듭의 중심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시키며 물고기 무리의 정상궤도를 표현하였다.

이 세 작품은 물에 대한 체험에서 왔다. 넓고 깊은 바다는 다양한 공간을

품고 있는 원형(元型)이다. 무한한 바다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간혀진 이미지 보다는 전시장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설치를 이용하였다.

설치(設置)는 일상적으로는 전시회를 위해 작품을 걸거나 배치하는 작업 전반을 의미한다. 특정한 장소나 전시공간을 고려하여 제작된 작품과 공간이 총체적인 하나의 환경을 이룸으로써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미술을 말한다. 따라서 설치미술을 경험하는 관객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직접 참여 되며, 작품 자체 및 작품과 주위 공간 뿐 아니라 공간과 관람자가 이루는 관계까지 작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¹⁵⁾

본인의 작품에서 이러한 설치(設置)의 방법으로 작품 주변의 공간이 작품과 결합되어 전시공간에서 일루전(illusion)¹⁶⁾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 벽면에서 30cm 띄어 설치하여 작품에서 보여 지는 공간과 벽면에 그림자로 그려진 공간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벽면에 그림자로 보여 지는 마티에르는 마치 바다의 물이 일렁이는 느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작품과 전시장의 공간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

② 확장

【작품 4】, 【작품 5】에서 보이듯이 단일의 매듭을 점차 확장시켜 공간감을 연출하였고, 그 확장된 공간들의 중심이 정면으로 이동함으로써 공간이 다양하게 분할되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작품표현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자기 영역 확장을 의미 한다. 하나의 기법이 자 유닛은 3차원으로 확장 되었으며, 점차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확장해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내포 하고 있다.

15) 월간 미술, 「세계 미술 용어 사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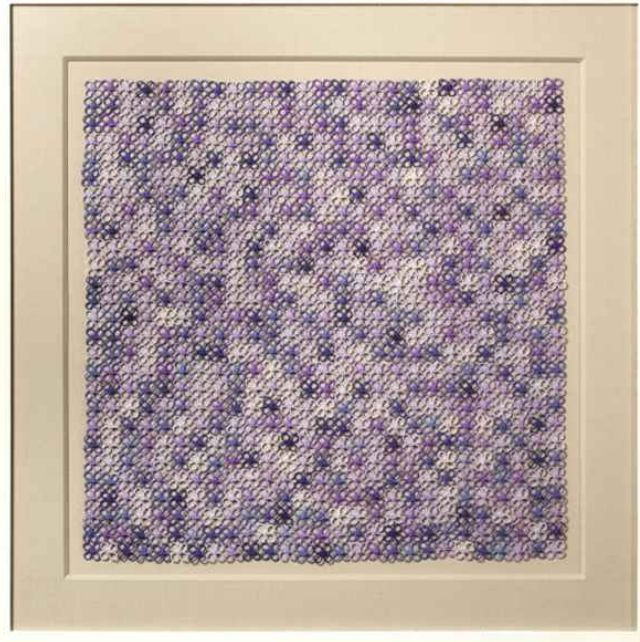
16) 일루전[illusion] : 환상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연출 방법

이 두 작품의 표현법은 이동은 없으며 중심에서 외곽으로 확장의 개념이다. 중심은 정면으로 솟아오르며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8개의 잎을 통해 점점 발전해야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인의 숙명을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하나의 선이 얽히고설키며 그자체로 조밀한 공간을 형성하는 매듭은 확장과 이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비유하게 된다.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매듭지어야 하며, 매듭을 풀어야 하며, 매듭을 끊어야 하는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과 사,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결정된다.

일련의 형태를 만드는 매듭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엮여지는 공간은 우리의 삶과 같이 구조적 규칙성을 가지면서도, 이동을 통한 발생(發生)과 소멸(消滅)을 암시 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공간을 보다

【작품 1】 공간을 보다

연도 : 2013년

크기 : 100x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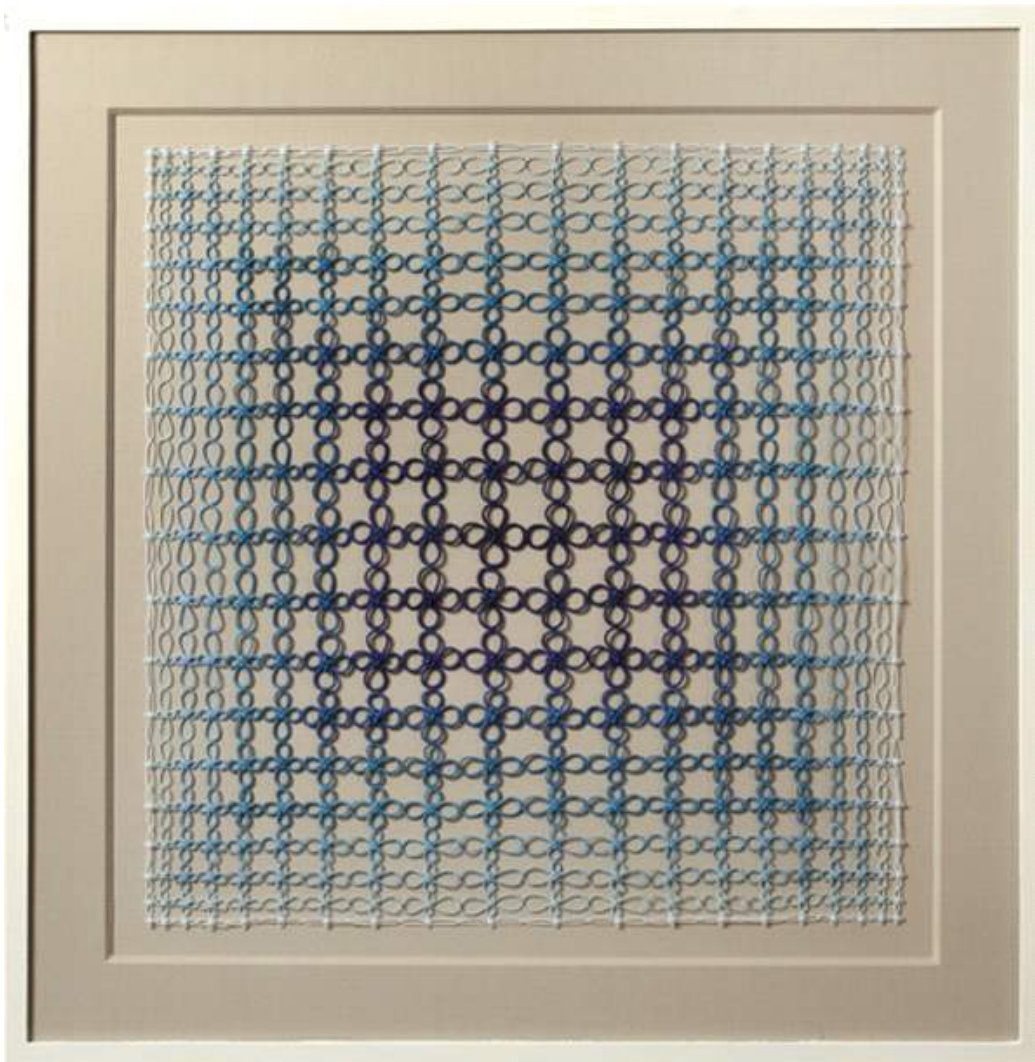
재료 : 끈

제작방법

1. 한국 전통 매듭 실(생지)를 이용하여 생쪽 매듭을 짓는다.
2. 만들어 놓은 생쪽매듭을 다양한 색상에 맞게 안료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3. 염색된 매듭은 본드와 물을 혼합(1:2비율)한 본드에 적신 후 말린다.
4. 매듭을 가지런히 나열하여 각각 맞는 부분에 본드로 붙인다.

작품설명

매듭을 이용한 가장 처음의 작품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생쪽매듭을 일렬로 나열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이러한 패턴은 일정한 형태의 반복과 확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반복성은 본인의 불안 심리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반복 행위으로써 이루어지며 무념무상의 상태로 머릿속의 불안을 해소하는 행위로부터 나온다.



【작품 2】 물의공간

【작품 2】 물의공간

연도 : 2013년

크기 : 100x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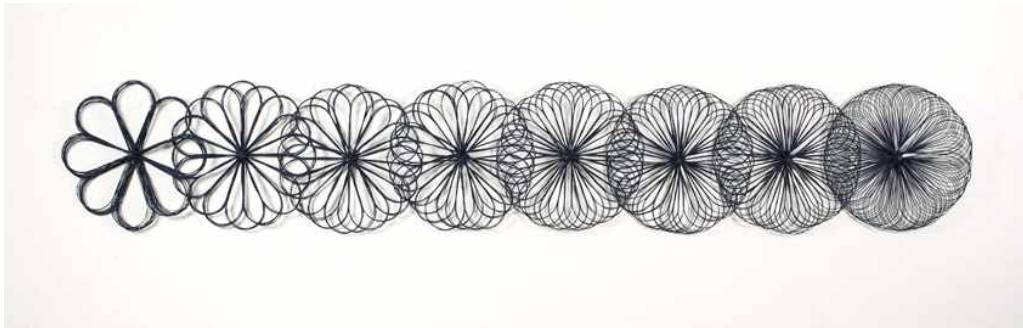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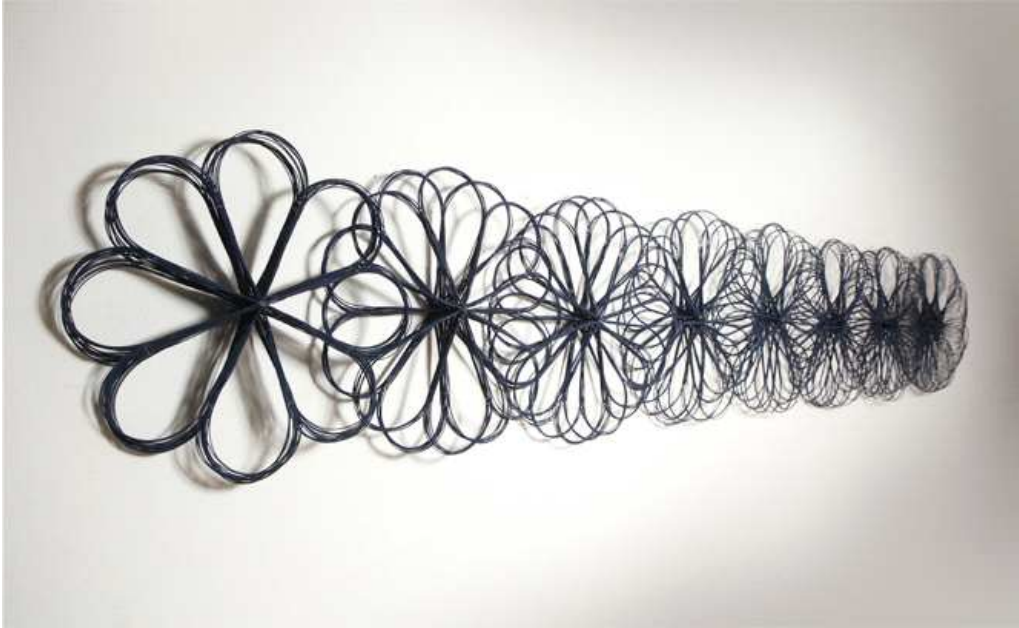
재료 : 끈

제작방법

1. 볼록함을 표현하기 위해 격자 형식의 도면을 만든다.
2. 한국 전통 매듭 실(생지)를 이용하여 생쪽매듭을 각 도면의 칸에 맞게 크기를 맞추면서 맺는다.
3. 만들어 놓은 매듭을 의도한 색상에 맞게 안료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4. 염색된 매듭은 본드와 물을 혼합(1:2비율)한 본드에 적신 후 말린다.
5. 매듭을 가지런히 나열하여 각각 맞닿는 부분에 본드로 붙인다.

작품설명

넓고 깊은 바다 속 공간은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규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바다 속 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 규칙성을 바다 속 생물들에게서도 보았고 그들이 물속공간에서 자기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질서 있게 살아감을 보고 인간의 삶과 유사함을 인식하였다. 물속의 물고기 시선을 의도하여 그라데이션 색 조합을 이용해 볼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물고기의 시선을 형상화한다.



【작품 3】 공간이동

【작품 3】 공간이동

연도 : 2013년

크기 : 455x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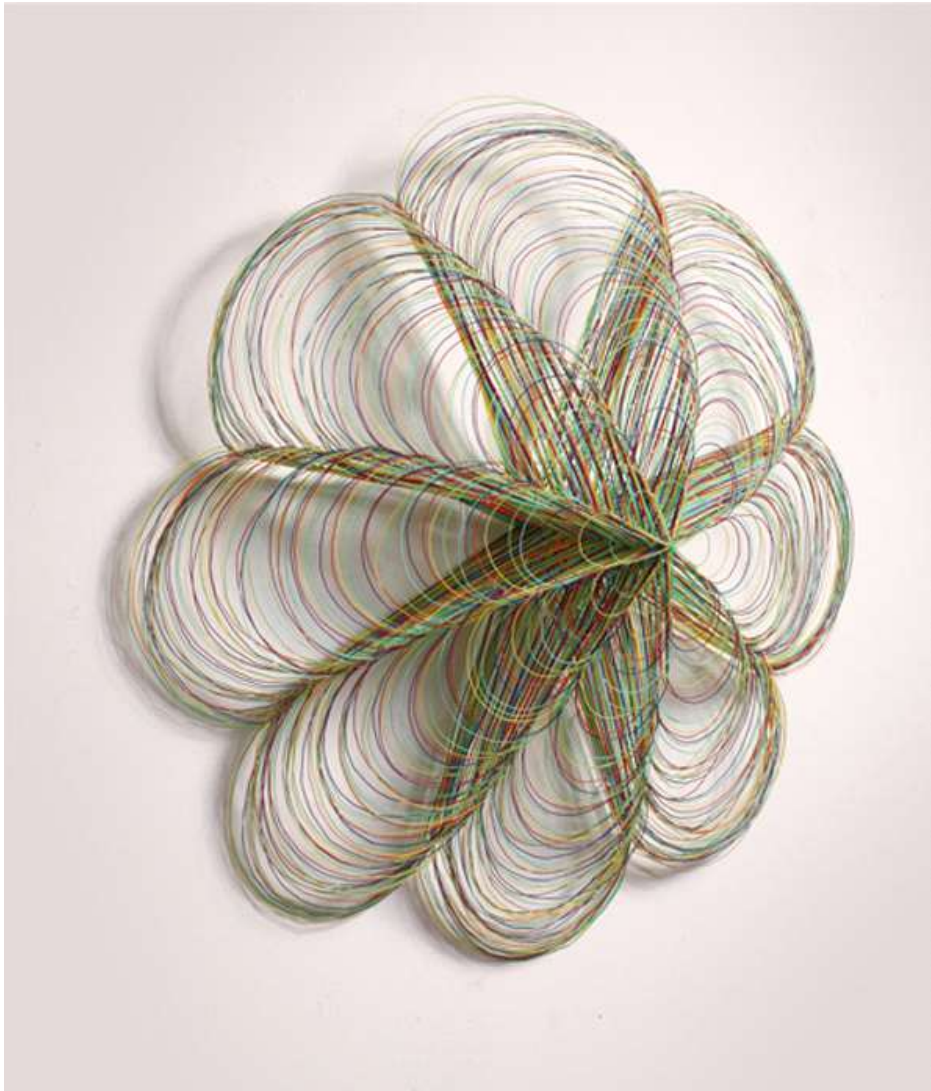
재료 : 끈

제작방법

1. 지름70cm 원을 그린다. 그려진 원 사방에 알맞은 원기둥 8개를 둘러가며 붙여 틀을 만든다.
2. 4옆이던 생쪽매듭에 4개의 옆을 더 붙여 8옆을 만든다.
3. 만들어진 8옆의 매듭을 만들어놓은 틀에 끼워 맞추면서 일정한 크기의 매듭을 만든다.
4. 딱딱하게 굳히기위해 에폭시분드를 완성된 끈에 발라 틀에 다시 끼운다.
5. 24시간 이 지나면 끈에 코팅이 되어 딱딱하게 굳는다.
6. 굳어진 오브제들을 일정한 방향과 계산되어진 간격으로 둘러가며 낚시줄로 묶는다.

작품설명

원초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바다 속 경험을 통해 넓고 깊은 바다는 본인의 작품 표현에 있어 많은 영감을 준다. 점점 깊어지는 닿을 수 없는 아득한 물속의 깊은 어둠의 공간을 표현 하기위해 중심의 축을 수평으로 이동 시켜 바다 속의 깊이 감을 표현 하였다.



【작품 4】 공간확장 I

【작품 4】 공간확장 I

연도 : 2013년

크기 : 100x100x45(cm)

재료 : 끈

제작방법

1. 100x100cm의 아이소핑크 중심점을 잡고 일정한 간격으로 원을 그린다.
2. 그려놓은 원을 중심을 기점으로 8개로 나눈 뒤 나뉜 곳에서 먼저 그려 놓은 간격에 맞춰 얇이 될 작은 원을 그려나간다.(도면완성)
3. 도면에 그려진 아웃라인에 맞춰 적당한 간격을 띄어 핀셋을 쫓는다.
4. 8잎의 매듭을 만들어 꽃아놓은 핀셋에 끼워 맞추면서 매듭을 맺는다.
5. 딱딱하게 굳히기위해 에폭시분드를 완성된 끈에 발라 틀에 끼운다.
6. 24시간 이 지나면 끈에 코팅이 되어 딱딱하게 굳는다.
7. 굳어진 오브제들을 작은 것 을 가장 위로 두면서 쌓아 붙인다.

작품설명

단일의 매듭을 점차 3차원으로 확장시켜 입체감을 통한 공간 연출을 하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자기 영역 확장을 의미 한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 발전해야 하는 현대인들, 도태 되지 않으려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야하는 숙명을 가진 현대인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 점차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확장해가야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내포 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각자 자기의 자리가 다름을 색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 공간확장Ⅱ

【작품 5】 공간확장Ⅱ

연도 : 2013년

크기 : 100x100x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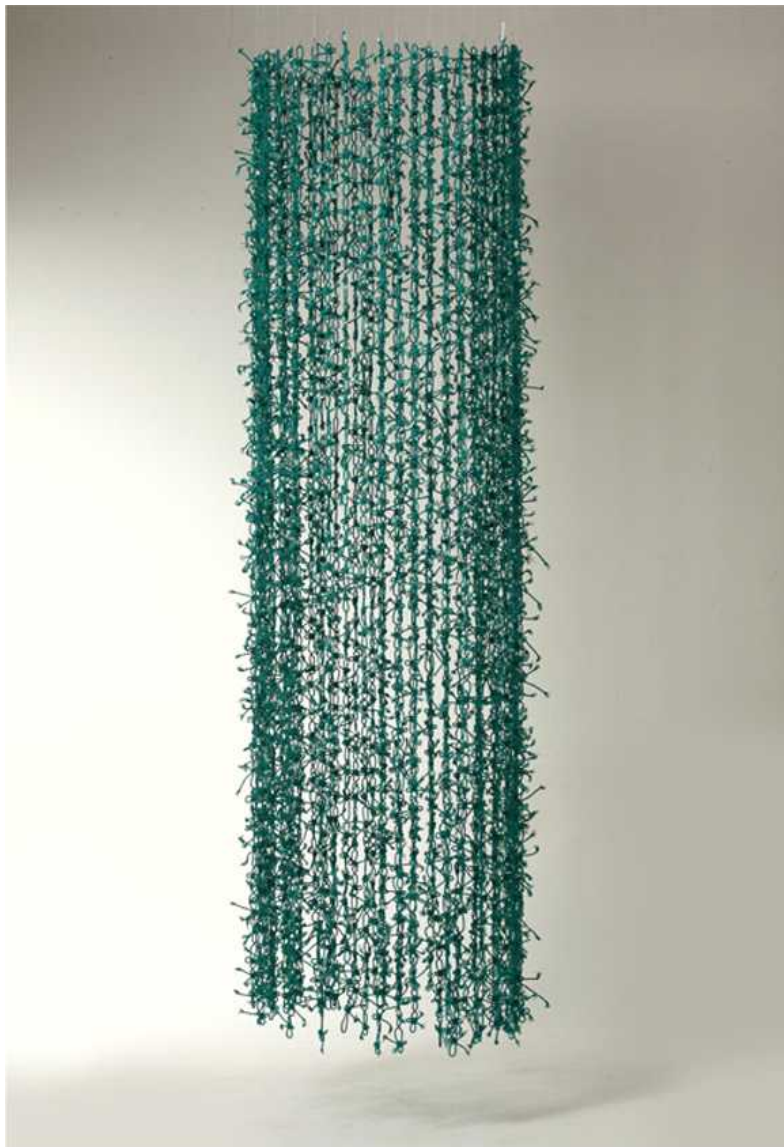
재료 : 끈

제작방법

1. 100x100cm의 아이소핑크 중심점을 잡고 일정한 간격으로 원을 그린다.
2. 그려놓은 원을 중심을 기점으로 8개로 나눈 뒤 나뉜진 곳에서 먼저 그려놓은 간격에 맞춰 얇이 될 작은 원을 그려나간다.(도면완성)
3. 도면에 그려진 아웃라인에 맞춰 적당한 간격을 띄어 핀셋을 쫓는다.
4. 8잎의 매듭을 만들어 꽃아놓은 핀셋에 끼워 맞추면서 매듭을 맺는다.
5. 딱딱하게 굳히기위해 에폭시분드를 완성된 끈에 발라 틀에 끼운다.
6. 24시간 이 지나면 끈에 코팅이 되어 딱딱하게 굳는다.
7. 굳어진 오브제들을 작은 것 을 가장 위로 두면서 쌓아 붙인다.

작품설명

단일의 매듭을 점차 3차원으로 확장시켜 입체감을 통한 공간 연출을 하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자기 영역 확장을 의미 한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 발전해야 하는 현대인들, 도태 되지 않으려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야하는 숙명을 가진 현대인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 점차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확장해가야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내포 하고 있다.



【작품 6】 자리잡기

【작품 6】 자리잡기

연도 : 2013년

크기 : 60x60x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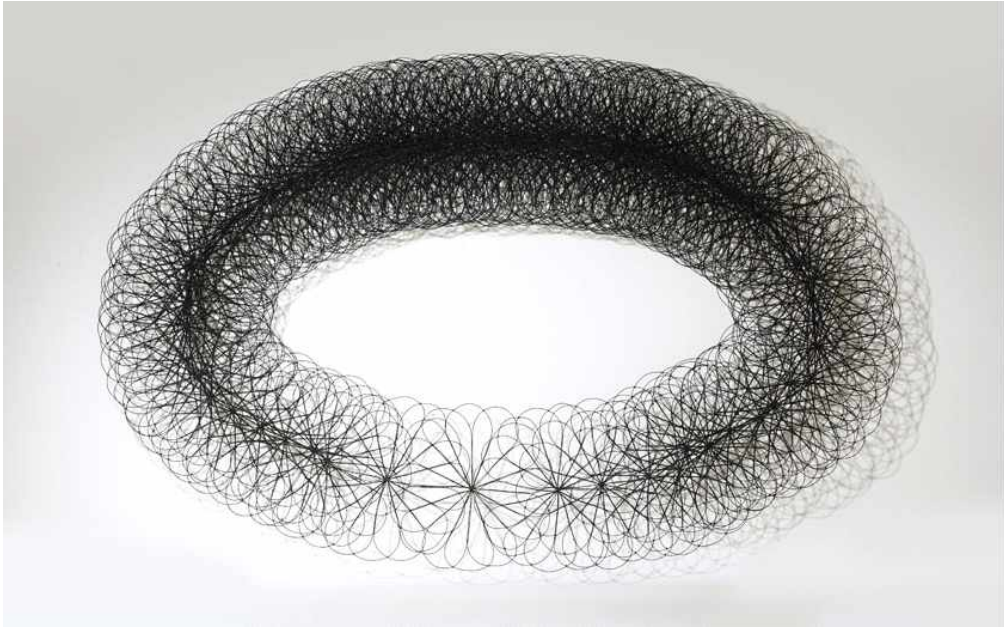
재료 : 끈

제작방법

1. 60x60cm의 아크릴판에 59cm의 원을 그리고 3cm간격으로 구멍 뚫는다.
2. 생쪽매듭을 맺는 과정 중 조이기 과정을 뺀 상태에서 작업을 끝낸다.
3. 약3000개의 오브제를 만든다.
4. 만들어진 오브제를 본드와 물 혼합(1:2비율)한 본드에 적신 뒤 말린다.
5. 오브제의 양끝을 고리로 서로 엮어준다.
6. 먼저 만들어 놓은 아크릴판에 낚시 줄을 이용하여 뚫어놓은 구멍에 한 줄씩 매단다.

작품설명

바다 속 물고기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리지어 다닌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쫓아간다. 뒤처지면 안 된 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물고기의 움직임이 본인의 눈엔 조금하고 여유 없는 현시대 우리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자리를 잡고 사는 우리 세상처럼 바다 속 미지의 세상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물고기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매듭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 7】 정상궤도

【작품 7】 정상궤도

연도 : 2013년

크기 : 350x200(cm)

재료 : 끈

제작방법

1. 지름70cm 원을 그린다. 그려진 원 사방에 알맞은 원기둥 8개를 둘러가며 붙여 틀을 만든다.
2. 4있이던 생쪽매듭에 4개의 잇을 더 붙여 8잇을 만든다.
3. 만들어진 8잇의 매듭을 만들어놓은 틀에 끼워 맞추면서 일정한 크기의 매듭을 만든다.
4. 딱딱하게 굳히기위해 에폭시 본드를 완성된 끈에 발라 틀에 끼운다.
5. 24시간 이 지나면 끈에 코팅이 되어 딱딱하게 굳는다.
6. 굳어진 오브제들을 350x200(cm)타원형의 도안에 맞춰 일정한 방향과 계산 되어 진 간격으로 이동시키며 케이블 타이 로 묶어준다.

작품설명

물고기 떼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타원형의 궤적이다. 물고기들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 속에서 애쓰며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인간 자신의 영역유지활동과 유사함을 느꼈다. 매듭의 중심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시키며 물고기 무리의 정상궤도를 표현하였다.

Ⅲ. 결 론

예술은 작가의 정신적 산물로 작가의 삶과 주변세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감으로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또는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억압된 감정에서 출발한 불안 심리는 신체 외적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고요한 외침과 같다. 이러한 신체적 반복행동이 불안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의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반복행동 중 매듭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불안 심리를 해소 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중 매듭에서 보여 지는 작고 단아한 공간에서 삶의 질서를 보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로 공간(자기자리)을 유지하고 영역 확장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시대 우리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삶을 표현함에 있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공간에 대해 고찰하고 끈으로 맺어지는 매듭의 특성상 선의 느낌을 강조하며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제작과정을 통하여 예술 창작 대상으로 사용한 매듭이 조형적 요소로써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매듭에서 보여 지는 소소한 공간 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보았고, 현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인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재료 기법 연구로 우리 삶을 표현해 내는데 집중 할 것이며 창의적인 조형 세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현철,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출판사 서평, 애플북스, 2011
- 김희진, 「아름다운 우리매듭」, 그래픽네트, 2008
-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 하이데거의 기분 분석을 바탕으로」, 청계, 2002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믿음사, 2004
- 오카모토타로, 「오늘의 예술」, 김영주 역, 놀와, 2005
- 조너선 스미스, 「자리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이학사, 2009
- 월간 미술, 「세계 미술 용어 사전」, 2007
- 김은영,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미진사, 2009

< 학술논문 >

- 이재훈, 「정신분석용어사전」, 미국정신분석학회,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 이유정, 「칼 안드레의 작품을 통해 본 미니멀리즘의 양면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함호진,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설치미술적 오브제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인터넷 >

- NAVER 국어사전, 「뭉다」
- 두산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f Spatial Express with ‘Knots’

Jung, So Won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s have been developed since mankind started to walk upright and use hands. As the origin of the present mankind, Homo sapiens (men with wisdom) began to hunt and use tools about 40,000 years ago. They could think, at least, abstractly and record daily phenomena. It was the beginning of artistic activity.

Arts originated with their behaviors of developing tools for the convenience of life and recording and came to have the meaning of incantation. Later, they started artistic activities for beauty. Homo sapiens had amazing manual skills such as weaving pieces or a basket, trimming leather and handling metal. The development of such delicate hand motions enabled them to live a settlement life and enriched their psychological lives.

The development of delicate hands led to that of fiber arts. Knotting behaviors such as tying, weaving and knitting were used as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time when language or letter were not developed. The present forms of knotting that stemmed from them to add convenience to life have been evolved with various functions and esthetic features.

As knots started to be used for decoration, going over the boundary of household items, they have been divided into knots for living and decoration. Since a long time ago, traditional knots,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hand to hand, is one of the important topics for the discussion of man's history.

The author attempts to study on the emotional stability obtained from the repetitive action of knotting and examine the place for the existence of mankind through the tiny spaces in knots.

Based on the author's works of the solo exhibition in 2013, the present study consists of 3 chapters that examine and analyze 'Spatial Express with Knots'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2, it first examines the repetitive action that occurs due to insecure state of mind and describes the concept of place to express the background of the work. Second, it reviews formative expressions based on a line, which is the expressing method of this work, reinterprets knots in the frame of modern sculpture and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knots and the method

of installation. Last, it carried out separate analyses for each of the author's 7 works. In chapter 3, the present study is summarized and the results of it are proposed.